

韓 제약사, '보툴리눔 독신' 효과·안전성 입증... 해외 공략

대웅제약 '나보타' K독신 성장
올 3분기 306억 수출 매출 기록
美서 2년간 연평균 62% 성장률

휴젤 '레티보' 美 품목허가 재신청
휴온스바이오파마 공장 추가 건립

국내 기업들이 보툴리눔 독신 시장을 공략하며 '안티에이징'으로 향하고 있는 미래 산업에 주력하고 있다.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전 세계에서 'K독신'으로 성장하고 있다. 12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나보타'는 올해 3분기 306억원의 수출 매출을 기록했다. 아울러 3분기 누적 매출 1133억원으로 지난 2022년 동기 대비 5% 성장했다.

'나보타'는 특히 미국에서 최근 2년 동안 연평균 62%의 매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주보(나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독신 제제가 전 세계에서 인지도와 입지를 넓히고 있다. /대웅제약

보타'의 미국 제품명)의 장기 지속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지난 10일 고용량 40유닛 주보의 6개월 장기 지속 효과를 최종 확인했다. 대웅제약의 미국과 유럽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 피부외과 학회'에서 임상 2상 최종 결과를 공개한 것이다.

이번 임상은 고용량 40유닛 주보의 미간 주름 개선 효과와 지속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환자의 최대 찡그림 시 '미간 주름 척도'를 기준으로 했다. '미간 주름 척도'는 미간 주름 정도를 지표화한 것이다.

에볼루스 측은 ▲시술 후 환자가 본래 미간 주름 척도로 돌아가는 데 걸리는 기간 ▲미간 주름 개선 효과를 보인 환자의 효과 지속 시간 ▲시술 후 개선도 평가 척도 등을 측정했다.

또 이번 임상에서 활성 대조군은 20유닛 보톡스와 20유닛 주보였다. 부작용 결과값은 활성 대조군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이와 관련 에볼루스 관계자는 "심각한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박성수 대웅제약 부사장은 "고용량 40유닛 주보의 시술 주기 유연성을 확보해 환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국산 보툴리눔 독신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한 데 이어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독일 등 유럽으로도 판매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동남아시아 대표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하기도 했다.

글로벌 토털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 휴젤은 지난 9월 미국 식품의약국에 미간 주름을 적응증으로 자사 보툴리눔 독신 제제 '레티보' 50유닛과 100유닛에 대한 품목허가를 재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휴젤은 오는 2024년 1분기에 미국에서 '레티보'의 품목허가

획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레티보는 국내 보툴리눔 독신 시장 점유율 1위 제품으로 국내 최초로 중국, 유럽, 호주 시장으로 진출하기도 했다. 지난 2022년 6월에는 캐나다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휴젤 관계자는 "성공적인 미국 진출을 통해 휴젤이 전 세계 독신 산업을 이끄는 기업으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휴온스바이오파마는 보툴리눔 독신 제품의 해외 진출을 강화하기 위해 바이오공장을 추가로 건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충북 제천 바이오밸리에서 바이오3공장 착공식을 가졌다. 휴온스바이오파마는 700억원을 투입했으며 공장은 연면적 1만㎡, 지상 5층 규모로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세노바메이트', 美 특허권 기간 5년 연장



K블록버스터로 성장 기대
2029년 매출 10억弗 전망

SK바이오팜이 미국 바이오·제약 산업에서 뇌전증 혁신 신약 '세노바메이트'의 장기 성장 가능성을 확보했다.

SK바이오팜은 세노바메이트(미국 제품명: 엑스코프리)의 미국 특허권 존속 기간이 오는 2032년 10월 30일까지로 연장됐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2027년 10월까지였던 물질 특허 기간이 5년 연장된 것이다.

SK바이오팜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특허청은 세노바메이트의 개발과 허가 획득에 소요된 시간과 관련해 특허권 존속 기간의 최대 연장을 인정했다.

SK바이오팜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미국에서 세노바메이트를 공식 출시해 왔다. 앞서 지난 2007년 10월 세노바메이트 물질 특허를 획득했다. 이후 지난 2019년 11월 신약 승인을 받았다.

이번 특허 기간 연장을 통해 세노바메이트는 미국 시장에서 가치를 보호받으면서 K블록버스터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세노바메이트가 SK바이오팜의 현금창출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

어 SK바이오팜은 오는 2029년 세노바메이트 미국 매출만으로 10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세노바메이트는 출시 후 14분기 연속으로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올해 3분기 미국 매출은 757억원으로 역대 최대폭(+122억원)의 분기 성장을 기록했다. 아울러 지난 9월 월간 처방수는 2만2985건으로 올해 초부터 확대되고 있는 신규 처방 수를 기반으로 미국 내 총 처방 수도 지속해서 증가했다.

이동훈 SK바이오팜 사장은 "세노바메이트의 강력한 현금창출력을 기반으로 빅 바이오테크로 성장하겠다"며 "연구개발을 혁신 기술 플랫폼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이랜드, '이월드 일루미네이션' 개최

이랜드그룹 주얼리-테마파크 계열사 이월드는 오는 18일부터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을 '이월드 일루미네이션'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월드 일루미네이션은 이월드의 대표 캐릭터인 비비, 포포를 활용해 '비비의 드림나이트' 테마로 선보인다. 비비의 드림나이트는 비비의 상상이 만들어낸 신비로운 꿈속, 빛의 나라로 떠나는 스토리로 이월드 전역이 판타지한 공간으로 꾸며진다. 1000만개의 다양한 조명과 불빛이 만들어 내는 빛의 향연으로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월드는 이번 '이월드 일루미네이션' 개최를 기념해 산타들과 함께하는 성대한 점등식과 인더스타즈 불꽃쇼 등 다양한 공연을 진행한다. /이랜드그룹

조선포털엔리조트, '썩데이 전용 패키지' 판매

객실·다이닝 등 최대 82% 할인



그랜드 조선 제주_힐 스위트_프레스티지 힐 스위트 객실. /조선포털엔리조트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조선포털엔리조트가 '썩데이'를 맞아 객실부터 다이닝 등 124개 썩데이 상품을 최대 82% 할인 혜택으로 선보인다.

조선포털엔리조트는 '2023 대한민국 썩데이'를 맞아 조선 팰리스, 웨스틴 조선 서울과 부산, 그랜드 조선 부산과 제주 등 전체 호텔이 참여하며 객실 상품과 식음으로 구성을 다양화했을 뿐만 아니라 김치, 간편 가정식, 침구 등 리테일 상품과 7일간의 고객 참여형 퀴즈 이벤트, 썩닷컴 내 타임팅, 라이브커머스 채널을 활용해 풍성한 쇼핑 혜택을 구성했다.

객실 상품으로는 조선 팰리스, 그랜드 조선 부산과 제주, 웨스틴 조선 서울과 부산, 레스케이프, 그레비티 등 조선포털엔리조트의 모든 호텔이 참여한 가운데 총 40개 객실 상품을 최대 82% 할인 적용해 조선포털엔리조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썩데이 전용 패키지로 판

30% 할인되며, '더 조선포털' 프리미엄 베딩 라인은 베스트 셀링 아이템인 구스 베개와 구스 토퍼를 15% 할인가에 제안한다.

이와 함께 SSG닷컴 채널을 통해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할인 상품과 쿠폰도 준비된다. 썩데이 첫날인 13일 '썩데이 타임팅'을 통해 웨스틴 조선 부산의 이그제큐티브 비치 객실을 최저가 29만 2000원에 선보인다. 15일에는 SSG닷컴의 라이브 커머스 채널 '썩라이브'를 통해 그레비티의 객실, 레스토랑 이용권을 할인 판매한다.

또한, 이번 썩데이를 위해 특별히 구성한 '2023 대한민국 썩데이 어워드' 상품으로 7개 호텔의 스위트 객실을 1년 동안 누리는 '1914 스위트 이어'를 선보인다. 1914년에 개관한 조선포털이 오는 2024년, 11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이를 기념하며 고객들이 일년 동안 럭셔리한 스위트룸 호강스를 누릴 수 있는 이색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한림대의료원-ETRI, 첨단의료 실현 앞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의료 AI 공동연구 워크숍

사례를 선보였다.

한림대학교의료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의료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나아가 정밀의료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한림대의료원은 지난 9일 서울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본관 3동 미카엘홀에서 '의료 AI 공동연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림대의료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유튜브 실시간 중계를 통해 한림대의료원 교직원과 ETRI 직원 65명이 참석했다.

특히 한림대의료원 산하 5개 병원 중 한림대강남성심병원이 ETRI와의 공동 연구를 이끌어 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의료진들은 ▲지능형 진단 ▲의료 AI 예측 ▲정밀 치료 등 3개 분야의 6가지 연구

분야에서 신장내과의 조아진 교수와 이영기 교수가 각각 '급성·만성신부전 환자 바이오마커 연구'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만성콩팥병 관리 연구'를 발표했다.

송지은 산부인과 교수는 '의료 AI 예측'이라는 주제로 '바이오 텍스트 마이닝 기술을 통한 유전자-단백질-임신성 고혈압 연관성 분석 및 예측 기술 분석'에 대해 강연을 했다.

정밀 치료 분야에서는 ▲전립선암, 방광암, 비뇨기암 치료에 있어 전기장 종양치료의 가능성(박사현비뇨의학과 교수) ▲딥러닝을 이용한 전립선암 수술 후 합병증 예측 및 의사결정 보조 시스템(이동현 비뇨의학과 교수) ▲안질환에서의 진단마커 발굴과 치료개발(신영주 안과 교수) 등의 연구 결과 발표도 이어졌다. /이청하 기자